

## 부록

### 1\_서울 소재 D.N.A. 업체 설문조사 결과

#### 1)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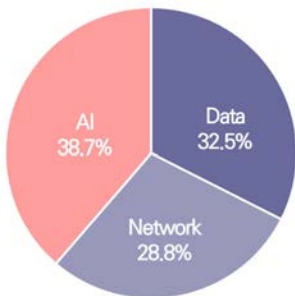
서울 소재 D.N.A. 업체의 입지 및 업무공간 이용 현황과 수요, 제품 및 서비스 거래 실태, 서울 신성장산업과의 연계 현황과 애로사항, 그리고 지원정책 수요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7월 14일~8월 26일이며, 조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하는 D.N.A. 업체 274개이다.

####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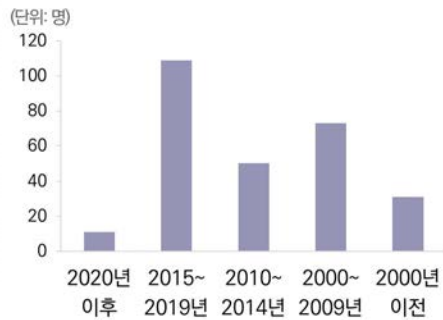
##### (1) 응답 업체 일반현황

##### ① A>D>N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 43.8%가 창업 후 7년 이내의 업체

설문에 응한 D.N.A. 업체의 분야별 비율은 각각 32.5%(데이터), 28.8%(네트워크), 38.7%(인공지능)이다. 또한,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스타트업(2015년 이후 설립)이 약 43.8%의 비중을, 2000년대에 설립된 기업이 약 2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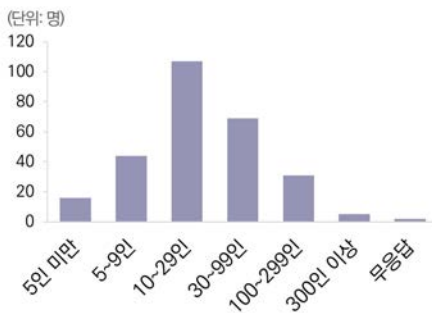
[그림 부록-1] 응답 업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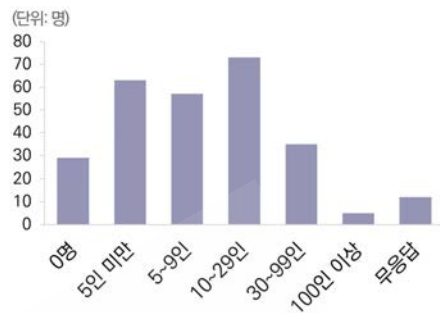
[그림 부록-2] 회사 설립연도 분포

### ② 60.9%의 업체가 10~29인 규모, 평균 14명의 기술 엔지니어 보유

기업 규모별 비율은 종사자수 29인 이하인 업체가 60.9%,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업체가 25.2%, 100인 이상인 업체가 13.1%이다. 기술 엔지니어 규모별 비중은 5인 미만이 23.0%, 5인 이상 10인 미만이 20.8%, 10인 이상이 41.2%이다. 기술 엔지니어를 한 명도 보유하지 않은 업체도 있는데, 업계 관계자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업무를 외주하는 경우, 외국 본사에서 관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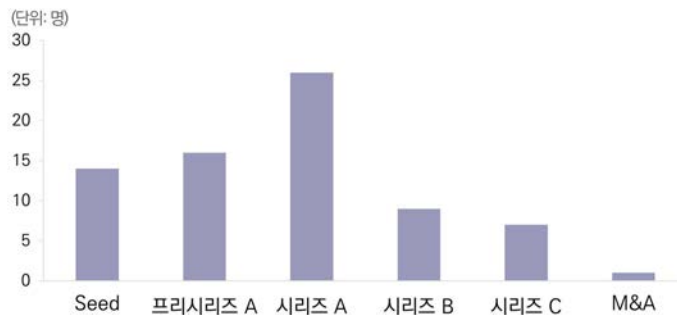


[그림 부록-3] 기업 규모 분포



[그림 부록-4] 기술 엔지니어 규모 분포

③ 약 26.6%만이 투자 경험, 시리즈A 단계 및 VC 투자 경험 업체가 큰 비중 차지  
응답 업체의 73.4%가 투자받은 경험이 없다. 투자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중 제일 최근에 유치한 투자가 Seed 단계인 업체는 14개, 프리시리즈A 단계인 업체는 16개, 시리즈A 단계인 업체는 26개, 시리즈B 단계 이상인 업체는 17개이다. 투자처는 VC가 대부분(60.3%)이며 타 기업(35.6%), 정부지원(26%), 개인투자자(21.9%)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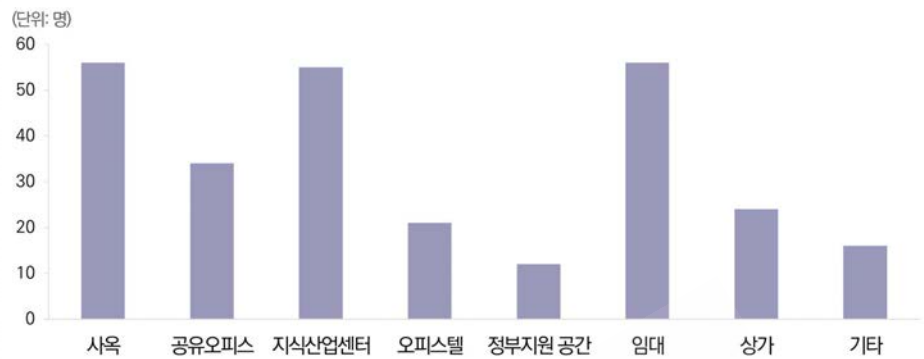


[그림 부록-5] 최근에 유치한 투자 단계

(2) 입지 및 업무공간 이용 현황과 수요

① 주로 사옥, 임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를 업무공간으로 활용

D.N.A. 업체의 주된 업무공간은 사옥(20.4%), 임대 오피스(20.4%), 지식산업센터 (20.1%)이다. 공유오피스(12.4%)에 입주해 있는 경우도 많고, 오피스텔, 정부지원 공간, 상가, 학교, 엑셀러레이팅 공간 등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부록-6] 업무공간 형태

② 교통의 편리함, 적절한 임대료, 지역의 상징성 때문에 현 입지를 선택

응답 업체의 88.7%는 업무중심지가 위치하는 12개 자치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D.N.A. 업체는 편리한 교통, 적절한 임대료 그리고 지역의 상징성을 크게 고려해 입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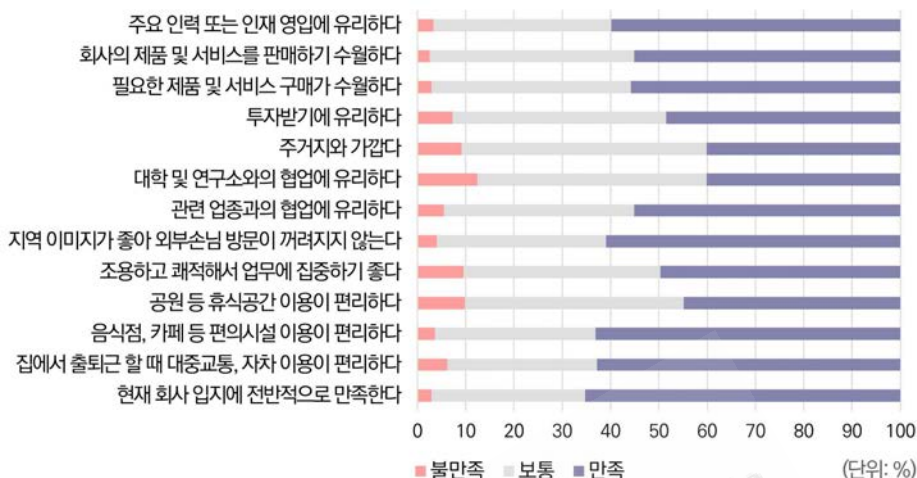
[표 부록-1] 회사 오피스를 현 위치로 정한 이유(N=274)

(단위: 명)

문항	1순위	1~3순위 합
① 지역의 상징성	39	111
② 편리한 교통	143	228
③ 적절한 임대료	39	138
④ 관련 업종의 집적	15	63
⑤ 오피스 건물의 집적	6	54
⑥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유리	11	89
⑦ 유동인구가 적어 조용하고 번잡하지 않은 환경	0	21
⑧ 음식점, 카페 등 상권이 근거리에 위치	1	27
⑨ 살던 곳 등 익숙한 지역이라서	5	25
⑩ VC와 근거리에 위치해 대면 스피치 등 투자유치에 유리	4	32
⑪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수월	0	7
⑫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수월	1	7
⑬ 기타	10	18

### ③ 대체적으로 현 입지 환경에 만족하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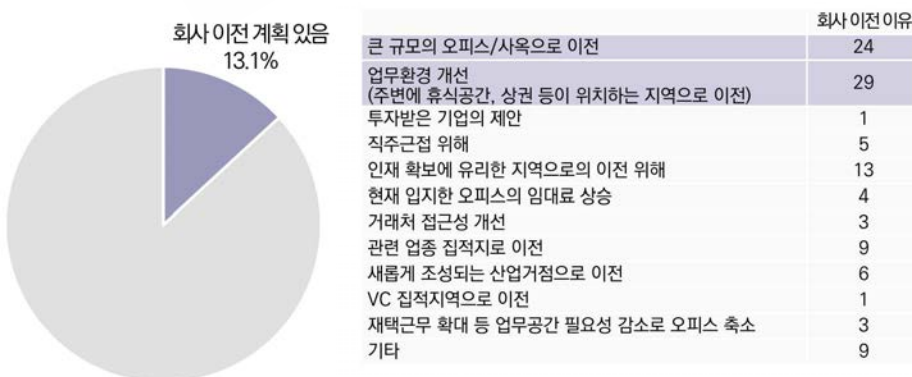
응답 업체들은 교통, 편의시설, 지역 이미지 등 모든 측면에서 현재 입지한 회사 주변 환경에 만족하는 편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주거지 접근성,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업 효율성, 휴식공간 이용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부록-7] 회사 주변 입지 환경 만족도

### ④ 13.1%가 회사 이전 계획 있으며, 사유는 업무 환경 개선과 사옥 마련

응답 업체의 약 13.1%가 향후 오피스를 이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주로 회사 주변에 휴식공간, 상권 등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큰 규모의 오피스나 사옥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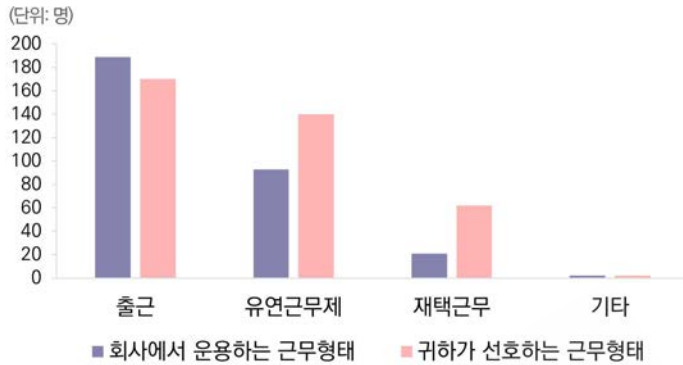


주: N=36(회사 이전 계획 보유 응답자), 1~3순위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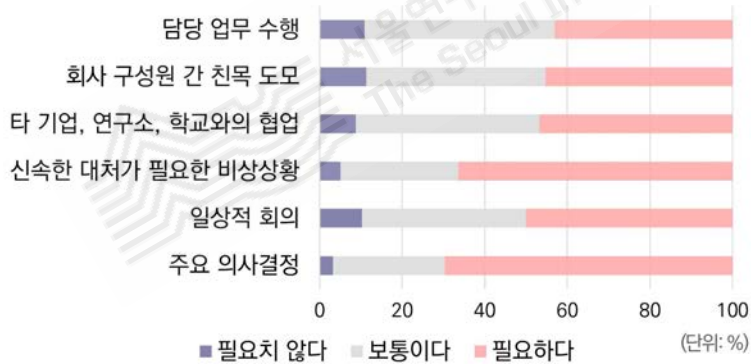
[그림 부록-8] 향후 회사 이전 의향

[그림 부록-9] 회사 이전 사유

⑤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는 7.7%, 대면 업무가 매우 필요하다고 여기는 편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D.N.A. 업체는 7.7%에 불과하며, 유연근무제는 33.9%가 운용하고 있다. 선호하는 근무 형태는 출근(62%), 유연근무제(51.1%), 재택 근무(22.6%) 순이며, 대부분의 업무 사항에서 대면접촉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림 부록-10] 근무 형태



[그림 부록-11] 업무 사항별 대면접촉 필요 정도

⑥ 대부분의 업체가 거점오피스를 운영하지 않고,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현재 거점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3.3%에 불과하며, 운영하지 않는 업체의 84.2%는 거점오피스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거점오피스 운영 비용 문제(8.3%), 직원 수요 없음(3.8%)의 이유로 거점오피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업체도 있다. 향후 거점오피스 운영 계획이 있는 업체 또한 4.2%뿐이다.



거점오피스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	
거점오피스 운영 비용 문제	22
직원 수요 없음	10
원하는 입지에 거점오피스 마련 어려움	4
거점오피스 단기 운영 불가	5
거점오피스 운영의 필요성을 못 느낌	223
기타	1

주: N=265(거점오피스를 운영하지 않는 응답자)

[그림 부록-12] 거점오피스 운영 여부

[그림 부록-13] 거점오피스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

### (3) 제품 및 서비스 거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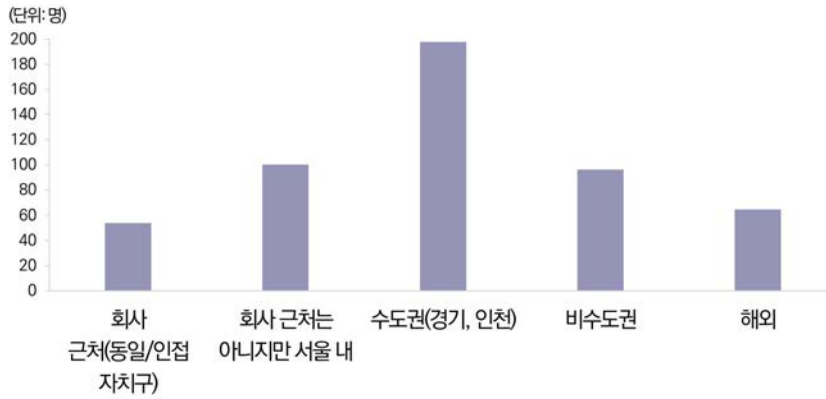
#### ① 응용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는 제품 개발 및 공급 시 필수 요소

서울 소재 D.N.A. 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주요 투입 요소는 응용 소프트웨어(65.0%), 데이터(51.8%),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32.5%)이다. 이들 요소의 주요 구매처(중복 응답)는 주로 경기·인천(72.3%)이며, 서울 내(56.2%)와 비수도권(35.0%)인 경우도 많다.



주: 3개까지 선택 가능

[그림 부록-14]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투입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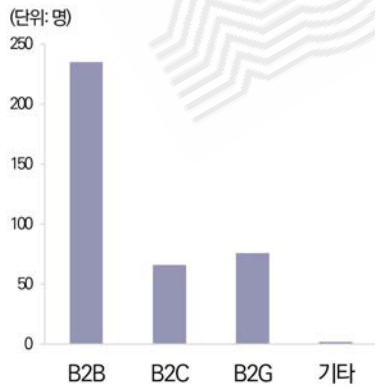


주: 중복 선택 가능

[그림 부록-15] 구매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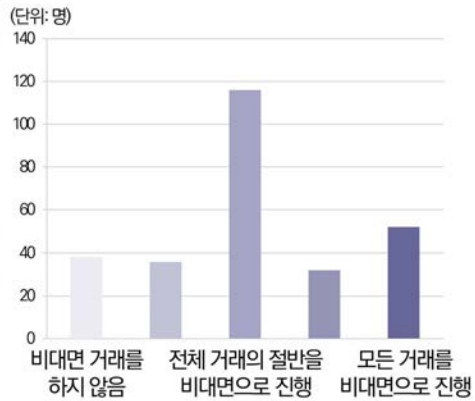
② 주요 거래 형태는 B2B이며, 거래 시 물리적 거리의 구매를 받지 않음

제품 및 서비스의 주요 거래 형태는 B2B(85.8%)이며, B2G(27.7%), B2C(24.1%) 순이다. 제품 및 서비스 거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업체는 86.1%이며, 73.0%에 해당하는 업체가 전체 거래 중 절반 이상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제품 및 서비스 거래에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업체는 56.2%에 달한다. 반대로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업체는 12.0%에 불과하다.



주: 해당 사항 전부 선택

[그림 부록-16] 거래 형태



[그림 부록-17] 비대면 거래 빈도



#### (4) 서울 신성장산업과의 연계 현황과 애로사항

##### ① 서울 신성장산업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 및 거래 경험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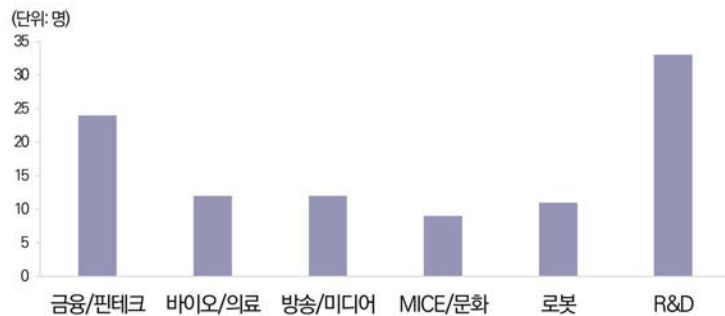
D.N.A.산업을 제외하고 서울의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또는 거래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는 16.1%로 적은 편이다. 이렇듯 관련 경험이 없는 데에는 인재 영입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과 제품 및 서비스 판로를 개척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표 부록-2] 서울 신성장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거래 경험 부재 이유(N=230)

(단위: 명)

문항		1순위	1·2순위 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① 고정비용의 증가 (임대료,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	40	50
	② 인재 영입의 어려움	48	84
	③ 관련 기술 및 산업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함	35	44
	④ 투자 유치의 어려움	15	27
	⑤ R&D 자금 부족	15	27
	⑥ 양질의 데이터 구축의 어려움	6	12
	⑦ 법/제도적 규제	1	3
	⑧ 현장에 제품 및 서비스 시연 어려움	3	7
	⑨ 기타	43	45
제품 및 서비스 거래	① 제품/서비스 판로 개척의 어려움	9	63
	② 동종업계 내 경쟁심화	1	5
	③ 법/제도적 규제	1	4
	④ 제품 수요 적음	0	7
	⑤ 기타	0	3
기타	① 서울 신성장산업이 회사 사업모델과 관련이 없음	17	68

② 신성장산업 관련 제품·서비스를 개발/거래한다면, R&D와 금융/핀테크에 관심 향후 신성장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거래할 계획이 있는 업체는 23.4%로 많은 편은 아니다. 개중에 개발 및 거래 계획을 밝힌 업체들은 특히 R&D(51.6%)와 금융/핀테크(37.5%)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림 부록-18] 향후 서울 신성장산업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거래 계획



### (5) 지원정책 수요

① 자금지원 관련 정책 수요 가장 높고, 저렴한 업무공간 및 마케팅 지원 희망 응답 업체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공공의 지원정책은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자금지원 확대(46.0%), 바우처 사업 확대(44.5%), 금융지원 확대(29.2%)로, 자금지원과 관련한 정책 수요가 가장 크다. 이 외에, 저렴한 임대료의 업무공간 제공과 마케팅 및 홍보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이다.

[표 부록-3] 희망하는 공공 지원정책(N=274)

(단위: 명)

문항		중복선택 합 (3개)
데이터 관련	① 데이터 표준화 확대	36
	②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확대	46
	③ 마이데이터 활용사업 확대	22
	④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확대	35
	⑤ 안전한 데이터 거래 기반 조성 확대	26
	⑥ 데이터 거래플랫폼 확대	23
	⑦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확대	17
공간 관련	① 관련 업종 클러스터 조성	19
	② 저렴한 임대료의 업무공간 제공	68
	③ 시간 사용이 유연한 업무공간 제공	14
	④ 다양한 작업공간을 보유한 업무공간 제공(회의실, 1인실 등)	10
	⑤ 직주근접 업무공간 제공	6
	⑥ 제품 시연 공간 제공	10
	⑦ 실시간 정보 및 서비스 전달이 가능한 지능적 인프라 환경(스마트도시) 조성	15
비즈니스 환경 관련	① 마케팅 및 홍보 지원	58
	② 글로벌 인증 지원	18
	③ 규제완화 및 관련 법/제도 보완	31
	④ 미인증 신기술 검증 및 컨설팅 등 R&D 기술지원	25
	⑤ 산학연 강화, 기술 사업화 지원 등 R&D 기반 조성	15
자금지원 관련	① 바우처 사업 확대	122
	② 기술개발, 기술이전 자금지원 확대	126
	③ 금융지원 확대	80

## 2\_D.N.A. 분야 기술 엔지니어 설문조사 결과

### 1) 설문조사 개요

D.N.A. 업체의 입지 요인 등을 심층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D.N.A. 분야 기술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추가 진행하였다. 현재 서울 D.N.A. 업체의 주요 의사결정에 사실상 기술 엔지니어의 기업 특성, 근무지 입지 및 업무환경, 근무 형태 등에 대한 선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숙련 인력의 부족으로 D.N.A.산업은 현재 공급자 우위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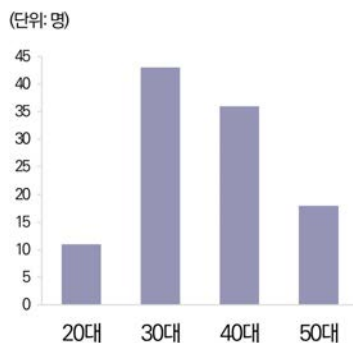
주요 조사내용은 D.N.A. 분야 기술 엔지니어가 선호하는 기업 특성(기업 선택 이유, 향후 이직 의향 및 이유 등), 근무지 입지 및 업무환경(근무지 위치 및 주거지로부터의 접근성, 회사 주변 환경 요소별 중요도 등), 근무 형태(재택근무 현황 및 선호도, 업무별 대면접촉의 필요성, 거점 오피스 사용 현황 및 수요 등) 등이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7월 25일~8월 1일이며, 조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하는 D.N.A.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 엔지니어 108명이다.

###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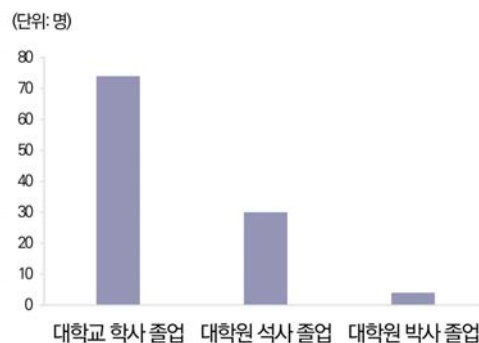
#### (1) 응답자 기본 사항

##### ① 주요 응답자는 3~40대이며, 10명 중 7명이 학사 졸업자

응답자 연령은 30대 39.8%, 40대 33.3%, 50대 16.7%, 20대 10.2%로 분포하며, 학력은 대학교 학사 졸업자 비중이 68.5%로 가장 크다. 대학원 이상 학력 비율은 50대가 55.6%로 가장 높으며, 이어 30대 27.9%, 40대 27.8%, 20대 18.2% 순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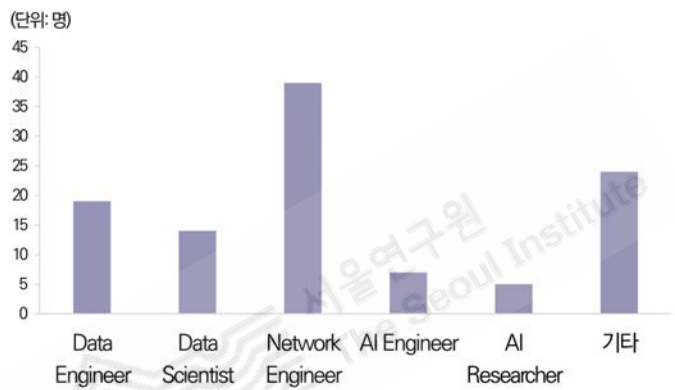
[그림 부록-19] 응답자 연령 분포



[그림 부록-20] 응답자 학력 분포

② 네트워크(36.1%), 데이터(30.6%), 인공지능(11.1%) 순으로 관련 기술자 응답 응답자의 36.1%가 본인의 직무가 네트워크 엔지니어(Network Engineer)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17.6%가 데이터 엔지니어(Data Engineer), 13.0%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 그리고 11.1%가 인공지능 엔지니어(AI Engineer, 6.5%) 및 리서처(AI Researcher, 4.6%)<sup>21)</sup>를 본인의 직무로 밝혔다.

구체적 업무 내용으로는 데이터 분야의 경우,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플랫폼 구축,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운영 등이, 네트워크 분야의 경우,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보안과 무선 네트워크 구축이,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데이터 분석, 자연어처리 등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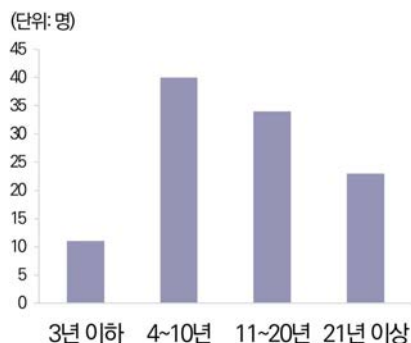


[그림 부록-21] 응답자 직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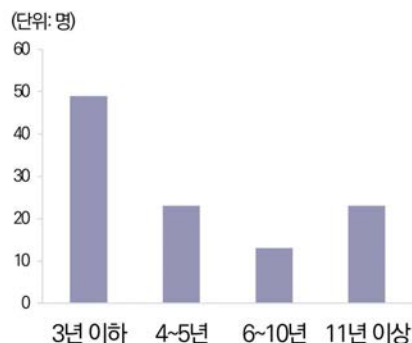
③ 과반이 업계 총 근속 연수 10년 이상으로, 높은 업무 전문성 보유

업계 총 근속 연수가 4~10년인 응답자 비율이 37.0%로 가장 높고, 11년 이상 비율이 52.8%로 응답자의 업무 전문성이 높은 편이다. 한편, 현 직장의 근속 연수는 3년 이하가 45.4%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이어 4~5년 및 11년 이상이 각각 2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1) Scientist와 Researcher의 주요 업무 영역은 '연구', Engineer는 '연구를 서비스로 접목'하는 것이다.



[그림 부록-22] 업계 총 근속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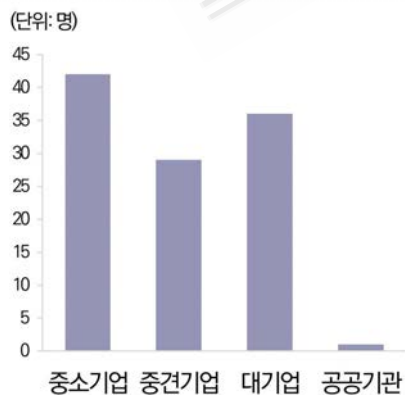


[그림 부록-23] 현 직장 근속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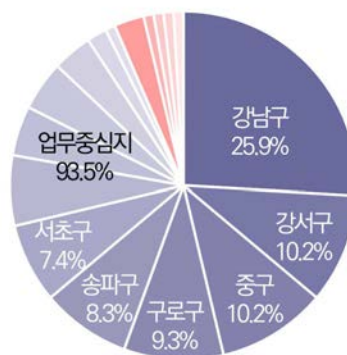
#### ④ 중소/중견/대기업 종사자 골고루 응답, 대부분 업무중심지에서 근무

응답자의 38.9%가 중소기업에, 26.9%가 중견기업에, 33.3%가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결과를 통해 D.N.A. 분야 기업 전반에 대한 특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회사 입지(업무중심지 입지 vs. 비업무지역 입지)에 따른 특성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타당성 있는 추론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업무중심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강남구(25.9%), 강서구(10.2%), 중구(10.2%), 구로구(9.3%) 등 업무중심지가 위치하는 12개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응답자가 93.5%에 달한다. 동작구, 관악구, 광진구, 서대문구, 양천구 등 일반적으로 업무중심지로 인식되지 않는 비업무지역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는 총 7명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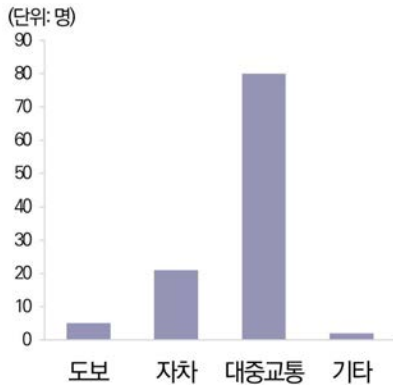
[그림 부록-24] 응답자 소속 기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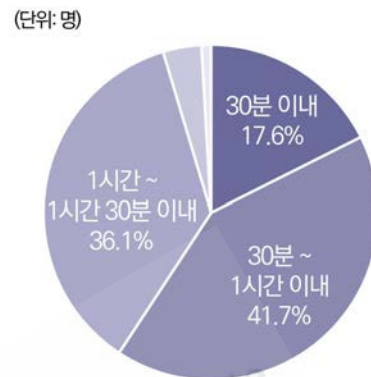
[그림 부록-25] 응답자 근무지 소재 자치구

### ⑤ 출근 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74.1%),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74.1%로 가장 높으며, 자차 이용은 1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보로 출근하는 경우는 4.6%에 불과하다. 출근 시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가 41.7%로 제일 많고, 거주지가 서울인 응답자의 평균 출근 시간은 45분, 경기도는 66분, 인천은 68분이다.



[그림 부록-26] 주요 출근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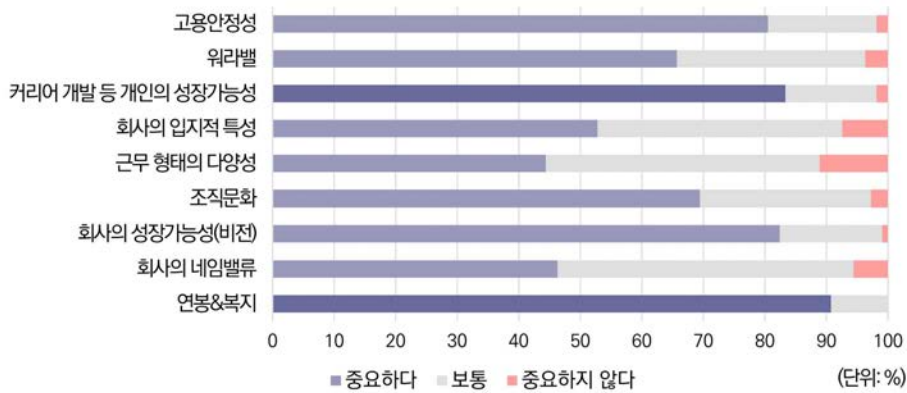


[그림 부록-27] 출근 시 소요 시간

## (2) 기업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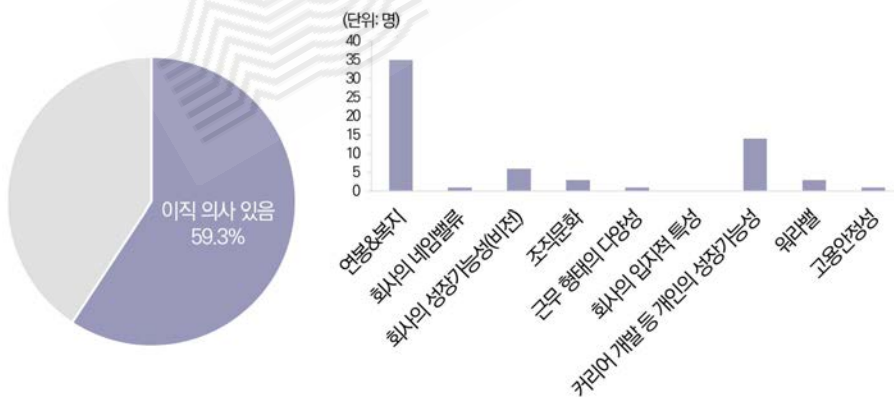
### ① 연봉 및 복지와 개인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중요

D.N.A. 분야 기술 엔지니어들은 기업을 선택할 때, 연봉 및 복지(90.7%)와 커리어 개발 등 개인의 성장 가능성(83.3%)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비전 등 성장 가능성(82.4%)과 고용 안정성(80.6%)도 D.N.A. 분야 기술 엔지니어의 기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실상 사전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모든 기업 선택 사유를 대다수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다만, 근무 형태의 다양성(44.4%)과 회사의 네임밸류(46.3%)가 비교적 타 사유와 비교해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부록-28] 기업 선택 사유별 중요도

② 더 나은 연봉 및 복지, 커리어 위해 10명 중 6명이 향후 1년 내 이직 의향 보유 응답자의 59.3%가 향후 1년 이내에 이직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젊을수록 이직 계획을 세우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결정 시에도 기업 선택 시와 동일하게 연봉 및 복지(이직 의향 보유 응답자의 54.7%), 커리어 개발 등 개인의 성장 가능성(21.9%), 회사의 비전 등 성장 가능성(9.4%)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부록-29] 향후 1년 내 이직 의향 및 이직 사유

### (3) 근무지 입지 및 주변 환경 선호와 실태

① 회사 주변 교통환경 가장 중요하고, 대학·연구소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  
D.N.A. 분야 기술 엔지니어들은 회사 주변 환경 요소 중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79.6%)과 원활한 도로 통행 환경(39.8%)과 같은 교통환경 특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카페 등 상권 접근성(38%)과 공원 등 휴식공간 접근성(35.2%)에 대한 중요도도 높게 측정된다.

한편, 그동안 주요한 산업 환경 요소로 여겨진 대학 및 연구소와의 접근성(“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50.0%,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14.8%), 협력 산업 또는 기업과의 접근성(40.7%, 23.1%), 유사 분야 및 업무 종사자 집적도(34.3%, 24.1%)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대면 업무의 확산으로 협력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또는 유사 업무 분야 종사자와의 교류에 물리적 근접성이 덜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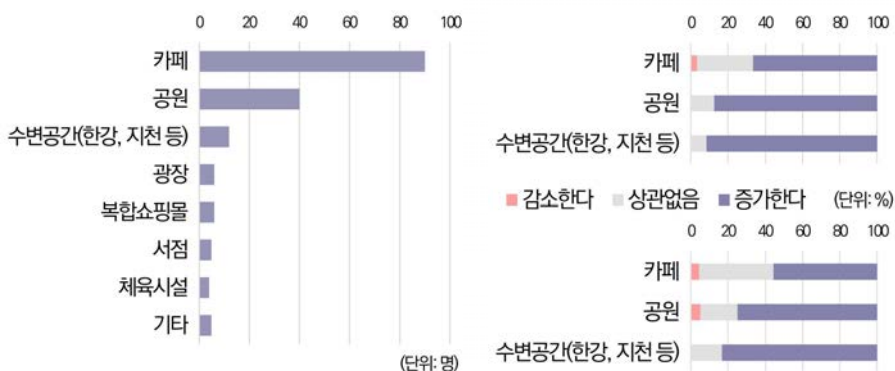


[그림 부록-30] 회사 주변 환경의 중요도

### ② 카페, 공원 등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업무 효율성과 창의력 제고

D.N.A. 분야 기술 엔지니어들은 점심시간이나 출장 중간의 여유시간에, 또는 회사 동료 및 방문자와의 대화 시 카페(83.3%), 공원(37.0%), 수변공간(11.1%) 등의 야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야외공간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D.N.A. 분야 기술 엔지니어들은 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카페, 공원, 수변공간을 이용할 시 업무 효율성과 창의력이 증가한다고 응답했다.





주: 중복 선택 합산

[그림 부록-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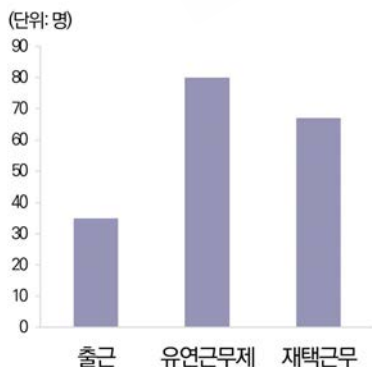
업무시간 중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야외공간

[그림 부록-32] 야외공간 이용 영향

#### (4) 근무 형태 선호와 실태

##### ①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선호하나, 실제로는 평균 일주일에 하루 재택근무

D.N.A. 분야 기술 엔지니어들이 선호하는 근무 형태는 유연근무제(74.1%), 재택근무(62.0%), 출근(32.4%) 순이다. 응답자의 84.3%가 일주일 중 하루 이상 재택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며, 주중 희망 재택근무 일수로 3일, 2일이 각각 31.5%, 27.8%로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로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각각 55.6%, 42.6%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재 응답자의 약 60.2%가 매일 회사로 출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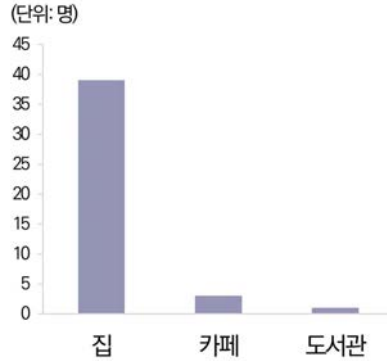
주: 중복 선택 합산

[그림 부록-33] 선호 근무 형태

[표 부록-4] 실제 및 희망 재택근무 일수(일주일 기준)

문항	(단위: 명)	
	실제 재택근무 일수	희망 재택근무 일수
① 0일	65	17
② 1일	17	14
③ 2일	14	30
④ 3일	6	34
⑤ 4일	2	5
⑥ 5일	4	8

② 카페 및 도서관을 이용하기도 하나, 재택근무자의 대부분이 집에서 근무  
현재 1일 이상 재택근무하고 있는 응답자의 90.7%가 집을 근무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는 카페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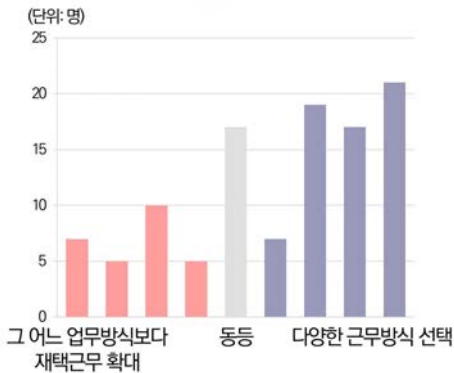


주: N=43(주중 평균 재택근무 일 1일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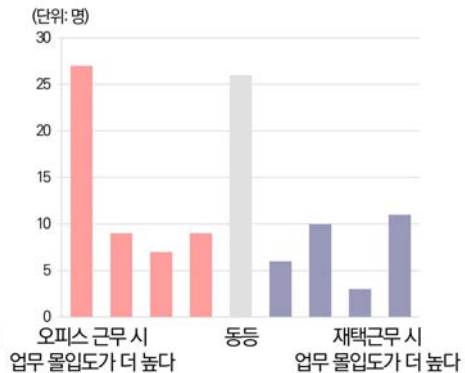
[그림 부록-34] 재택근무 장소

③ 재택근무의 확대보다는 근무 형태 선택의 다양성과 자율성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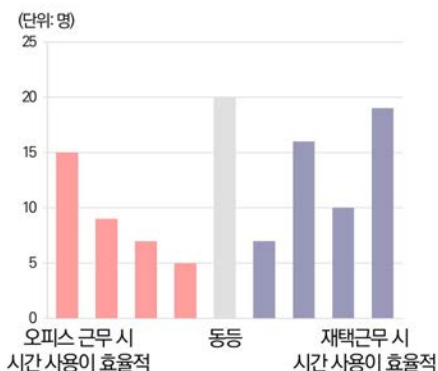
대부분의 D.N.A. 분야 기술 엔지니어들이 재택근무를 선호하지만, 그것이 재택근무만의 확대를 소망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택근무의 확대보다는, 오피스 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방식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할 때보다 오피스 근무를 할 때 업무 몰입도가 높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오피스 근무를 할 때보다 재택근무를 할 때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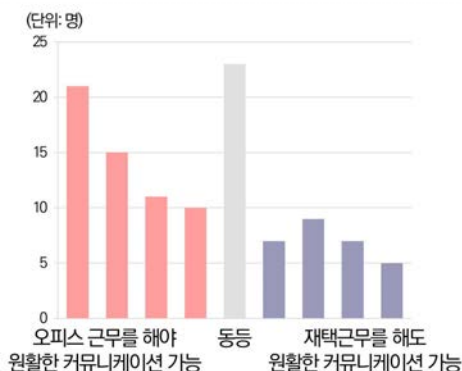
[그림 부록-35] 근무방식 선호 비교



[그림 부록-36] 업무 몰입도 비교



[그림 부록-37] 시간 사용 효율성 비교



[그림 부록-38] 커뮤니케이션 원활성 비교

④ 일상적 회의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은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고 인식  
모든 업무에 대면접촉이 필요하나, 일상적 회의를 할 때나 타 기업, 연구소, 학교와의 협업 시에는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다. 담당 업무 수행 시에도 비대면 방식이 무리 없다고 여기고 있다. 다만, 의사결정이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는 대면접촉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부록-39] 업무별 대면접촉 필요 정도

#### ⑤ 거점오피스의 실제 운영 및 이용률 낮은 편

응답자의 21.3%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거점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점오피스가 주거지와 멀고, 거점오피스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부록-5] 회사에서 거점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N=21)

(단위: 명)

문항	응답자수
① 거점오피스가 주거지와 멀어서	9
② 거점오피스로 가는 교통편이 불편해서	0
③ 거점오피스 지점이 다양하지 않아서	1
④ 거점오피스 내 업무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0
⑤ 본사 업무를 선호하는 조직문화 때문에	3
⑥ 개인적으로 거점오피스를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7
⑦ 업무 수행에 불편함을 느껴서	1

## ⑥ 미운영 회사 근무자, 출퇴근 편의와 재택근무 위해 거점오피스 사용 희망

하지만, 현재 회사에서 거점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78.7%의 응답자 중 85.9%는 거점오피스 사용 의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퇴근 편의와 재택근무 시 활용이 거점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주요 이유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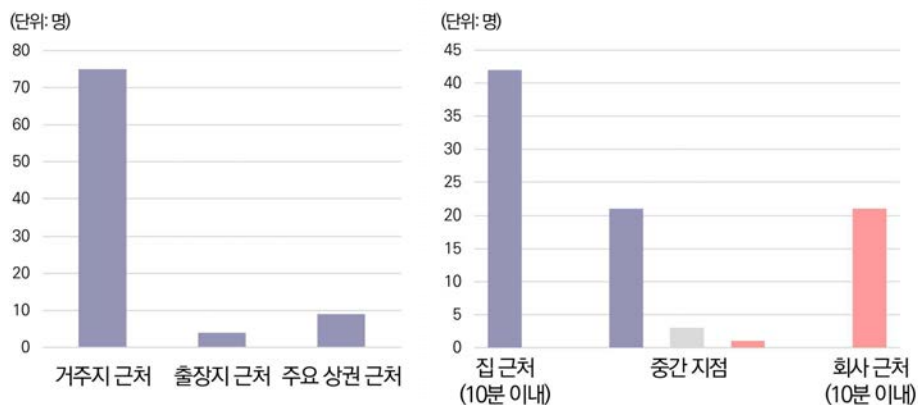
[표 부록-6] 거점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주요 이유(N=73)

(단위: 명)

문항	응답자수
① 출퇴근 편의	47
② 출장 중 업무 연속	3
③ 재택근무 시 오피스 활용	14
④ 회사 출근 시 해결이 어려운 사적인 우려사항 해소(가족돌봄, 자녀양육 등)	7
⑤ 학원, 강의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시간 위해	2

## ⑦ 거주지 근처 20분 이내 거리가 거점오피스의 위치로 가장 적절하다 인식

D.N.A. 분야 기술 엔지니어들은 거점오피스가 직장보다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 결과, 거점오피스 입지 희망지역으로 거주지 근처를 선택한 비율이 85.2%로 제일 높았고, 주요 상권 근처가 10.2%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선호율이 높은 거점오피스 입지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의 거리와 응답자들의 평균 출근 시간을 고려하면, 거점오피스가 대략 집에서 2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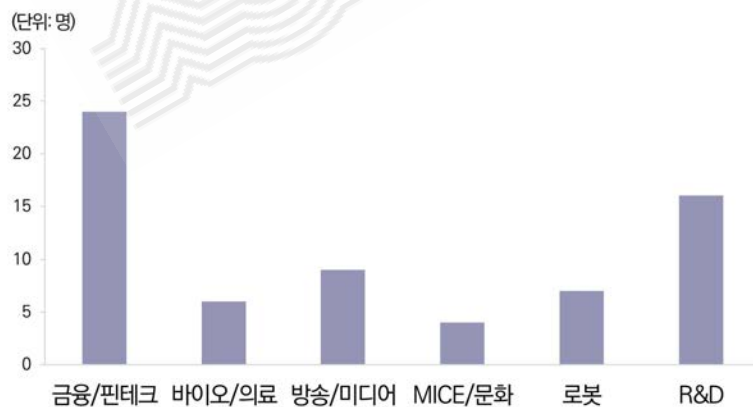


주: N=88(거점오피스 사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

[그림 부록-40] 거점오피스 입지 희망 지역

## (5) 서울 신성장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경험과 애로사항

① 금융/핀테크, R&D, 방송/미디어 순으로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경험자 다수  
응답자의 40.7%가 서울 신성장산업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금융/핀테크와 관련한 개발 경험 비율이 22.2%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이어 R&D가 14.8%, 방송/미디어가 8.3%로 높다.



[그림 부록-41] 서울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경험

② 신성장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인재 영입의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  
서울 신성장산업(D.N.A.산업 제외)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D.N.A. 분야 기술 엔지니어들은 인재 영입의 어려움이 주된 애로사항이라 응답하였  
다. 이 외에, 관련 기술 및 산업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점, 고정비용이 증가하  
는 점, 그리고 법/제도적 규제를 개발의 주된 걸림돌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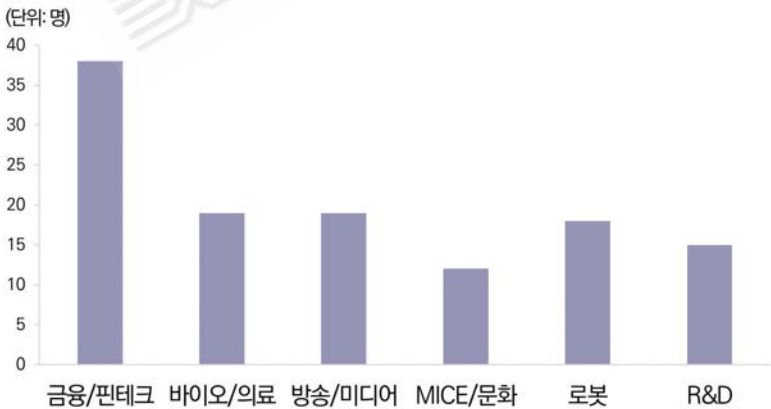
[표 부록-7] 서울 신성장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어려움(N=44)

(단위: 명)

문항	1순위	1, 2순위 합
① 고정비용의 증가(임대료,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	4	11
② 인재 영입의 어려움	21	30
③ 관련 기술 및 산업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함	3	13
④ 투자유치의 어려움	1	3
⑤ R&D 자금 부족	5	7
⑥ 양질의 데이터 구득의 어려움	2	8
⑦ 법/제도적 규제	4	10
⑧ 현장에 제품 및 서비스 시연 어려움	1	1
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음	3	5

③ 향후 신성장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의향은 높은 편

응답자의 약 59.3%가 향후 서울 신성장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핀테크(35.2%), 바이오/의료(17.6%), 그리고 방송/미디어  
(17.6%)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부록-42] 서울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의향